

“내 노래 들어 보실래요” 무료 음원사이트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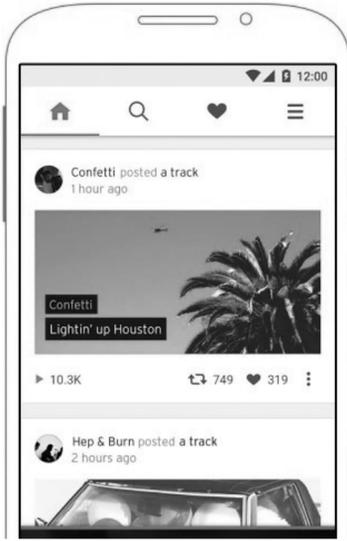
‘사운드클라우드’ 인디 뮤지션들 애용 광주문예회관·아이돌 등도 팬과 소통 아마추어 기회 창구 ‘유튜브’ 활동 활발

문화를 찾아서 즐기는 시대다. 자기 취향의 문화콘텐츠를 원하는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대형 기획사나 유료 음원 사이트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마추어가 진출할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졌다. 무료 음원 사이트 ‘사운드클라우드’는 아마추어 뿐 아니라 관련 기관·아이돌 등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전문 비평가가 아니라도 많은 이용자들이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다.

◇**무료 음원 공유 ‘사운드클라우드’**
음악을 만들어도 들려줄 곳이 없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참신한 음악을 찾는다면?

음악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 생긴 사이트가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com)이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사운드클라우드에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직접 자신이 만든 음악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음악가가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 작품을 올리거나, 이용자가 음악을 듣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사운드클라우드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이디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최근에 들은 곡에 따라 추천 리스트가 생겨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SBS 예능 ‘더 팬’에서 박정현과 타이거JK, 윤미래 등이 여기서 아마추어 가수 유라와 김형서의 노래를 듣고 팬이 됐다고 말하면서 사운드클라우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무료로 음원을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 ‘사운드클라우드’.

광주에서도 5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저마다 창작곡과 기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커버’(cover) 음원을 공유하고 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역시 시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수록곡과 시립창극단 ‘수궁가’ 창작곡 등을 올려 공연 뒤에도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회관은 오는 3~4월 공연하는 오페라 ‘망부운’과 발레 ‘라 실피드’의 창작 곡들도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창작자가 직접 음악을 올리고 정식 발매되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유명 뮤지션들도 사운드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의 자작곡 ‘약속’은 사운드클라우드에 내놓은지 22일 만에 28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멜론·지니뮤직 등 유료 음원 사이트에서는 들을 수 없기에 아이돌의 노래는 더욱 주목을 받는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전혀 없더라도 직접 ‘찾아 듣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사운드클라우드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아마추어 기회의 창 ‘유튜브’**

요즘에는 지역에서도 유튜브 등 전세계적인 공유 서비스를 통해 창작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튜브에 덧붙여 생기고 있는 ‘영화 리뷰 채널’은 기존 영화 잡지와는 다른 비평 매체다. 일반 관람객의 시선에서 영화를 솔직하게 분석하고 쉬운 용어와 자막을 구사하는 특성 때문에 많은 유튜브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 청년문화활동가 정상훈(28)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에서 ‘상자’라는 이름으로 ‘영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정씨는 ‘말모이’, ‘마약왕’, ‘스윙 키즈’, ‘신들의 전쟁’, ‘베일리 어게인’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영화 리뷰 영상을 올렸다.

지난 19일에는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자전차왕 엄복동’의 줄거리·출연진 등을 소개하는 ‘프리뷰’(예고) 영상을 내놓기도 했다. 영상은 매번 ‘스포일러 주의’를 맨 앞에 내걸 정도로 영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제작 뒷이야기 등 시청자의 흥미를 끄는 내용도 군데군데 심었다.

올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것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정씨는 최근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마블 시리즈’ 풍의 도입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로 작년 말 사임하자 조영풍(75) 미래환경정책연구원 고문을 선임회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긴급소집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위원 65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인사 포함 41명이 참석해 상정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은 선임회장 추천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문화활동 경력이 없는 조 고문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선임회장 추천자는 광주대 경제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후 미래환경정책 고문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광주시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유로 작년 말 사임하자 조영풍(75) 미래환경정책연구원 고문을 선임회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긴급소집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위원 65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인사 포함 41명이 참석해 상정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은 선임회장 추천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문화활동 경력이 없는 조 고문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선임회장 추천자는 광주대 경제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후 미래환경정책 고문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광주시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광주혁신’, 인사(人事)가 먼저다

무엇보다 난해하고 실험성 짙은 콘텐트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자칫 예산만 축내는 애물통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다음아닌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다.

지난 2013년 창립된 지원포럼은 초대 대표인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과 제2대 손정연 대표를 중심으로 전담분과, 문화도시환경조성분과, 예술진흥·문화산업분과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방향과 전담 콘텐츠의 대안을 모색하는 거버넌스역할을 해왔다.

최근 지원포럼이 제안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지원포럼 임시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신임회장 선임안건’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이 ‘이력’을 이유로 오는 2월말 정기총회로 논의의 미룬 것이다. 지원포럼은 2015년 12월 취임한 손 대표가 개인적인 이

력보다 난해하고 실험성 짙은 콘텐트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자칫 예산만 축내는 애물통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다음아닌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다.

최근 지원포럼이 제안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지원포럼 임시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신임회장 선임안건’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이 ‘이력’을 이유로 오는 2월말 정기총회로 논의의 미룬 것이다. 지원포럼은 2015년 12월 취임한 손 대표가 개인적인 이

력보다 난해하고 실험성 짙은 콘텐트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자칫 예산만 축내는 애물통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다음아닌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다.

력보다 난해하고 실험성 짙은 콘텐트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자칫 예산만 축내는 애물통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다음아닌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다.

력보다 난해하고 실험성 짙은 콘텐트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자칫 예산만 축내는 애물통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다음아닌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어두운 상황에서 빛 지향하는 의지 형상화

곡성 출신 이민주 소설가 창작집 ‘종이꽃’ 펴내

‘종이꽃’과 ‘동굴’은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종이꽃은 생명이 없는 인위적인 꽃이며, 동굴은 갇힌 어둠의 공간이다. 두 사물과 공간에는 공통적으로 부정적 의미가 투영돼 있다. 그러나 두 소재를 역설적인 시각, 아니 어떤 행위를 매개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종이꽃을 접는다거나 ‘동굴’에서 모종의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희망이나 생명의 의미로 전이된다.



공간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치매를 앓는 봉래 씨 또한 종이꽃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 작가는 “인생을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작든 크든 그것은 의지 속에 스며들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삶을 어렵게 만든다. 나의 소설 주인공들은 상처를 입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치유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작가는 목포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동서문학상 공모전 단편소설상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움직이는 공간이면서 목숨이 서서히 죽어가는 공간이다.

화자인 나는 종이꽃을 접으며 병실 속 사람들과 모습을 들여다본다. 환자들과 간병인들은 ‘동굴’과 같은



갓디엘 남성합창단 ‘모든 찬양을 주님께’ 공연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갓디엘 남성합창단(사진)이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18번째 정기공연 ‘모든 찬양을 주님께’를 연다.

호남삼육고 동문으로 구성된 갓디엘 합창단은 매년 1월 동문·재학생 단원들과 함께 정기 공연을 열고 있다. 남성 4부 합창을 기본으로 하는 이 단체는 지난해 23기 단원 모집을 마쳤다.

이날 공연에서는 먼저 ‘나팔을 들어서 1993’으로 문을 열고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빛되신 주’ 등으로 중창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아카펠라곡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등을 무대에 올리고 ‘거룩한 성령의 빛’, ‘십자가를 높이들라’ 등을 함께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이번 무대에서 이진성씨가 지휘봉을 잡고 문정미·김경진씨가 반주를 맡는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10-3904-667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문화 일꾼 양성 기관 다음달 15일까지 모집

문화체육부는 지역의 문화 일꾼을 양성할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 기관을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다.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화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무원서 및 전자우편(jeonga001@korea.kr) 등으로 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는 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문의(014-203-2625)하면 된다.

문화체육부는 지역의 문화 일꾼을 양성할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 기관을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다.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홍문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워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